

## 腦炎의 治療經驗 回顧

李 起 東



1955年경 南原市 鍾洞 75番地에 韓藥業士인 최창렬(崔昌烈) 先生이 살고 계셨다. 先生은 일찌기 日帝時代에 醫生으로서 醫藥界에 從事하면서 많은 患者를 接하여 왔었는데 그 가운데 腦膜炎을 비롯 腦疾患에 關心을 갖고 特히 腦炎治療藥 研究에 專念하였다. 當時에는 現代醫藥에서도 腦炎患者에 對한 治療處方이 그다지 特方이 없던 時代였다.

그러한 現實에서 先生은 自身이 오랜동안 心血을 다해 研究했던 腦炎藥으로 많은 患者를 治療한 經驗을 가지고 있었다

筆者가 崔昌烈先生을 가깝게 모시게 된 것은 1957年 봄부터였다. 約 六年여 동안 先生의 手下에서 醫藥工夫를 하던 중에 先生으로부터 腦炎治療에 關한 深奧한 醫術을 傳授하게 되었고 筆者도 先生을 따라 더욱 그 疾病研究에 熱心히 努力하였다

그러던 중 不幸하게도 1963年 先生께서는 他界하시고 말았다 그해(1963年) 나는 韓藥業士試驗에 合格하여 先生의 偉業을 이어받아 韓藥房을 내 이름으로 開設하게 되었다 經驗은 不足하였지만 先生을 잃은 나는 先生으로부터 傳授한 腦炎治方에 대하여 내 스스로 研究에 더욱 努力했다

그런데 1964年 8月경에 全國적으로 腦炎患者가 發生하게 되었는데 그 當時 내가 거주하고 있는 南原郡全域에 70여명이 넘는 腦炎患者가 集團적으로 發病하여 많은 患者가 生命을 잃거나 苦痛을 당하게 되자 保健當局에서도 緊張하게 되었다.

그러자 筆者가 經營하는 藥房으로 腦炎患者들이 찾아오기 始作했다. 筆者를 찾게 된 것은 나의 先生이 生存하셨을 때부터 腦炎治療를 받고 完治된 患者들의 所聞을 듣고 찾아 온 것이다

筆者는 作故하신 先生의 處方을 中心으로 그 동안 스스로 研究하고 體驗했던 處方을 症候에 따라 加減하여 投藥한 結果 그 治療效果는 自身을 疑心할 만큼 大端한 效驗을 얻게 되었다. 이 神秘하고 奧妙한 治療效驗의 所聞은 곧 南原을 中心으로 隣近은 勿論

全國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筆者를 찾는 患者는 날로 늘어나 全國에서 모여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筆者는 告發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은 一部 新藥人들의 發祥이었지만 그들의 主張은 現代 醫學에서도 治療가 어려운 腦炎을 韓藥으로 治療한다는 것은 虛僞요 誇張이며 더욱 韓藥種商이 腦炎이라 診斷까지 내리면서 患者를 治療하는 것은 醫療行爲라고 告發을 당해서 韓藥房의 營業까지 정지를 당했다 그래도 달힌 문을 두드리는 많은 患者들이 찾아왔다.

나는 안타까웠으나 營業정지 상태에서 약을 投藥할 수는 없고 문을 닫게된 사정만 說明하고 돌려 보냈다 그러한 形便이 되자 患者家族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났다 10여명의 患者家族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났다 10여명의 患者 家族들이 保健所長과 郡守를 찾아가서 抗議를 했다 現代醫學도 束手無策인 形便에서 韓藥을 먹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있는데 行政만 앞세워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法만 알고 生命의 貴重함은 모른다는 말이라고 거센 抗議가 빗발치자 營業停止處分을 했던 行政도 有耶無耶되어 다시 患者들에게 投藥을 하게 되었다.

그 所聞은 더욱 擴散되었다 言論界(全北日報, 大韓日報, 朝鮮日報, 京鄉新聞 等)에 서도 이를 確認하고 오히려 大書特筆로 報道를 했다 患者를 爲한 弘報記事였다.

當時만 해도 우리나라의 形便이 都市와 農村의 差異가 甚했던 時代였는데 腦炎患者는 위생이 좋은 都市보다는 衛生施設이 모자라고 살기 어려운 시골 農村에서 腦炎患者의 發病이 많았다

결론은 먹고 살기 어려운 농촌에 환자는 많았고 그 농촌 환자들은 急性腦炎이 發生해도 돈이 없어 藥을 먹기가 어려웠다 그러한 患者들에게는 無料로 投藥을 해주었다. 非科學的인 韓藥으로 現代醫藥에서도 어려운 腦炎을 무슨 재주로 고치겠느냐는 비웃음도 받았으나 참으로 많은 生命을 求하게 된 나는 韓藥人으로써 自負心을 갖게 되었다

그 후 남원시 정송에 사는 김재술씨, 대산면에 사는 신해권씨, 멀리 강원도 삼척군 근덕면 김선호씨, 전주시 노송동 진규천씨 등 내 藥을 服用하고 治療된 父母들이 中心이 되어 여러차례 感謝狀도 받았고 이화익남원군수로부터 行政上의 感謝狀도 받았다. 그렇게 되자 全北道 療 保健課에서 그동안 腦炎으로 治療받은 후 完治된 患者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여 주었으면 하는 公文이 와서 事實을 公文대로 提出한 바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治療藥이 韓醫學的으로 또는 洋醫學的으로 論難의 對象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韓醫學의 優秀性을 남기기 위해 韓醫學의 專門教育機關인 당시 東洋

## ■ 뇌염의 치료경험 회고

醫藥大學 金長憲 教授에게 그동안 腦炎患者 治療의 所見과 經過를 處方과 함께 간략한 문헌을 작성하여 보낸바도 있다.

지금은 腦炎患者의 發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동안 나의 治驗結果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腦炎은 물론 그와 類似한 疾患이 萬延되더라도 本處方을 加減하여 臨床症候에 따라 投藥하게 되면 腦炎이나 腦疾患의 患者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確信하는 바이다.

나의 治驗의 例가 韓醫學的 見解에서 좋은 研究資料가 되어 주길 바라오며 금번 秘方採錄의 事業이 成功하기를 빌고 나에게 이러한 機會를 만들어 주는데 대하여 感謝드린다.

## 體驗處方錄

대체로 10세 내외의 약한 小兒가 7~8月頃에 많이 發生하는데 뜨거운 日射를 받아 暑熱이 잠복했다가 立秋무렵 發生한 境遇를 많이 볼 수 있다 韓醫學的 原理로 火熱이 金을 이김으로 해서 木을 平하지 못해 熱生風으로 全身萎縮과 痙攣이 同伴한 듯 하다

急性 腦炎의 處方이 主로 解熱에 比重을 두는 것은 高熱이 腦를 長時間 刺戟하면 深刻한 腦損傷의 症勢와 後遺症을 豫想하고 早期에 解熱을 시켜 腦損傷을 豫防해야 하는 것이 賢明한 方法이기 때문이다

重要な 것은 항상 熱의 狀態를 잘 觀察하여 投藥하면 1週日內에 解熱시킬 수 있으나 2週日 以上 高熱, 微熱, 痙攣, 麻痺가 持續된다면 合病症이나 後遺症이 念慮되는 症勢이다 症勢가 進行되면서 그 過程에 陽極似陰 症勢도 나타날 수 있으며 手足은 차고 表熱은 없으면서 精神昏迷 輕微한 痙攣 및 譫語症이 있는 境遇가 있다

察診上 舌上 黃苔, 또는 黑苔가 있으면 熱이 傳裏되어 잠복함을 感知할 수 있다 虛와 實熱(裏症)을 確實히 파악하여 投藥을 해야 한다

本 體驗方의 原理는 東醫寶鑑 傷寒論과 暑篇을 參考하면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生覺한다.

### 1. 發病物 2~3日頃

#### ① 高熱 頭痛 혹은 嘔吐(노곤 허실함)

加 黃蓮解毒湯 石古 20g 麥門冬12g 黃芩 黃蓮 梔子 知母鹽水浸 黃栢鹽水浸 鹿角 竹茹 甘草 4g

② 急滯 暑滯가 되어 發熱

加味香薷湯 香薷8g 香附子 陳皮6g 白扁豆 山楂肉 藿香 厚朴 木果 木香 4g 黃芩 黃蓮 甘草 3g

2. 發病 7~8日

高熱 頭痛 項強 痙攣 言語障礙 人事不省 等 高熱로 인한 腦의 損傷에 위중한 증세이다 그러므로 應急解熱을 하여 熱이 長時間 持續되지 않도록 하여 腦炎의 後遺症을 免도록 해야 한다 灌腸을 하여 주는 것은 물론 承氣湯으로 通便을 하여 주어야 한다

이 때 態膽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응답이 구하기 어려우면 代用으로 山猪膽을 사용해도 좋다.(用量은 約 2~3g을 물에 녹여서 수시로 복용시킨다)

藥으로는

- 加犀角白虎湯 - 石古20g 生地黃 12g 眞犀角12g 麥門冬 瓜蒌仁 黃芩 黃蓮 梔子 知母鹽水浸 黃栢鹽水浸 防風 石菖蒲 天麻 白干蚤 竹茹 甘草 4g

3. 急性 肺炎 等 氣管支炎 痰盛 合病症이 有發하면 상당히 難治病이다.

- 加味清肺降火湯 - 瓜蒌仁 20g 麥門冬 12g 天門冬 遠志 桔梗 桑白皮 貝母 五味子 黃芩 知母鹽水浸 黃栢鹽水浸 眞犀角 甘草 各4g 杏仁 梔子 各2g

4. 陽明裏熱 燥糞인 경우

- 加 承氣湯 大黃 16g 瓜蒌仁 8g 生地黃 芒硝 枳實 黃芩 黃蓮 梔子 甘草 4g

5. 退熱後 後遺症은 多樣하다. 症勢에 따라 適宜한 處方을 擇하기 바란다.

- 加歸脾湯 當歸 石菖蒲 遠志 山楂仁炒 龍眼肉 白朮 白茯苓 木香 黃芪 木果 獨活 防風 烏藥 天麻 白干蚤 甘草 各4g

(書藝家 전북 남원시 금동 22-6 익수당 한약방 ☎ 0571-625-2669)